

뉴스

# 등록금 논의, ‘소통위원회’로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서울】대학본부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서울캠 총학)가 등록금 문제를 논의할 ‘소통위원회’를 구성한다.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학교-학생 간 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서울캠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학생회장은 “등록금책임위원회(등책위) 대신 등록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소통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통위원회는 현재 공석인 부총장 선임 전까지 미래 혁신원장 주관으로 발족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포함해 ▲코로나19 대책 ▲학사일정 문제 ▲학내 시설관리 등 학내외 여러 이슈가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대학본부와 학생 간 소통창구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해체되는 일시적 회의체가 아닌,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회의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소통위원회 세부사항은 현재 조율 중에 있다. 첫 회의 날짜와 회의 주기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소통위원회 구성은 대학본부와 서울캠 총학 간 의견 차이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대학본부가 “등책위 대신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서울캠 총학에서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온전한 등록금 논의”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대학본부는 총학 측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합의는 결렬됐다. 이에 서울캠 총학은 등책위 개회를 주장하며 기자회견 등을 벌였다. (위 사진. 서



울캠 총학, ‘등책위 개회’ 놓고 대학본부와 갈등/대학주보, 2020.3.30)

하지만 대학본부와 서울캠 총학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논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대학본부와의 관계가 경직됐지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신속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선제적인 연락과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지원센터 송기휴 행정과장 역시 “한 차례 소통위원회 구성이 무산되긴 했지만, 이후 대학본부와 총학간의 배려가 맞물려 이뤄진 결실이 소통위원회”라고 덧붙였다.

소통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서울캠 총학이 꾸준히 요구해온 등책위 개회와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가 당장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부총장 선임 전에는 등책위 개회가 어렵다고 하니, 부총장 선임과 동시에 소통위원회 안건으로 등책위 개회를 상정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19 사

태 수습 전에는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가 어렵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에는 변동이 없었다.”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와 관련해 송 행정과장은 “코로나19의 진행에 따른 예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사태 수습 전에 등록금 사용 내역을 취합하는 것은 무의미할뿐더러 대학본부 입장에서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바이러스가 종식되거나 1학기가 끝나면 사용 내역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 대학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록금 재논의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지난 7일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연세 교육권 네트워크 긴급 기자회견’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 총학과 대학본부의 면담이 이뤄졌다. 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 ERICA 캠퍼스는 ‘코로나 19 관련 지출 예산 집행 내역’을 제공하라는 요구에 학교 측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무허가 ‘푸른광장 지붕’ 철거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공과대학(공대) 건물 2층 동아리방이 모여 있던 ‘푸른광장’이 개선 공사를 진행한다. 지난 3월 26일 우리학교는 ‘푸른광장’ 개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흥구청으로부터 푸른광장 지붕이 도면상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된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 그 이유였다.

행정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푸른광장 지붕을 철거한 후 불법 증축 문제는 해결됐다. 다만, 지붕 철거 후 푸른광장 아래 강의실인 176호, 176-3호에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해 푸른광장 바닥 방수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 학교 측은 “지난 2월 푸른광장 바닥의 추가 방수 공사가 필요했다”라며 “동시에 주변 환경 점검 결과 동아리방의 환경 개선도 필요함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철거 공사 이후 진행된 환경 개선 공사는 동아리별 요청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공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대 행정실이 협의를 거쳐 천장 누수 방지를 위한 차양 설치, 외벽 새시 부착물 일괄 제거 및 개선, 냉·난방 시설 점검, 동아리방 내부 장판 교체, 동아리방 명패 제작 등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리방으로 미세분진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공사 중 동아리방 출입문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로 막는 보양 작업을 시행했지만, 보양이 미비한 문틈 등으로 미세분진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6일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해당 민원을 받았다”며 “공사 완료 시 청소를 시행하기로 약속했고 미세분진을 최대한 제거하는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존 4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공사 기간은 열흘 가량 지연된 상황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다. 공대 비상대책위원회 전재현(건축공학 2015)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강의가 무기한 연장되며 여유롭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더 섬세하게 작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공사 완료 예정일은 완성도 있게 작업하고자 4월 24일까지 한차례 미뤘다”며 “기상 상황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대 건물 지하와 생명과학대학(생대) 건물 또한 방학 중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공대는 지하 1층 강의실, 지하 2층 화장실과 열람실을 리모델링했으며, 생대는 화장실과 과학생화실, 지하 1층 동아리방 리모델링과 함께 카페형 휴게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 줌(Zoom) 보안 문제, “미흡한 점 있지만 현재로선 최선의 플랫폼”

〈화상강의시스템〉

김가연 기자 rkdu0617@khu.ac.kr

코로나19 사태로 이용률이 급증한 화상강의시스템 ‘줌(Zoom)’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학교는 사용자 제한, 고유 ID 설정 안내 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지난 30일 우리학교는 화상강의시스템 줌 기능이 포함된 신규 온라인 강의 플랫폼 이캠퍼스(e-campus)를 도입했다. 줌은 쌍방향 화상강의 시스템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수업은 물론 출결 확인에도 용이하다. 또한 각 사용자는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본인의 컴퓨터 화면을 회의 참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이캠퍼스는 실시간 강의를 지원하고 모바일 학습을 최적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줌이 최근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줌 폭격

(Zoom Bombing, 화상 회의에 원치 않게 침입해 방해하는 행위), 개인 정보 유출, 중국 서버로의 데이터 전송 등으로 인한 각종 보안 문제가 벌어지면서 그 취약성이 지목된 것이다.

줌 폭격은 화상회의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 음란 영상을 올리거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이버 테러를 지칭한다. 9~11자리 숫자로 구성된 ID를 이용해 간편 접속하는 줌의 편의성을 악용한 것이다.

줌에서 생성된 화상회의 정보가 중국 서버를 거친다는 사실 또한 논란이 됐다. 줌은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이지만, 개발자가 중국계 미국인이며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중국 내 기업이 취득한 정보는 정부 요청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줌 CEO 에릭 위안은 “당분간 모든 개발 업무를 중지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는 “줌 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혼란스러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선 최선의 플랫폼으로 여겨진다”며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즉각 피드백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캠퍼스 이용 안내에 공지한 ‘Zoom 안심 설정: how to prevent zoom bombing?’과 ‘화상회의 플랫폼 안심 설정 안내’ 등 보안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해 보안 문제를 방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센터에서 올린 안심 설정 게시글엔 줌 폭격 관련 기사 링크와 줌의 자체 보안 업데이트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돼 있다. 또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유한 회의 ID 자동 생성’, ‘사용자 제한 설정’, ‘2인 이상의 호스트 지정을 통한 회의 환경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센터 측은 “학교 자체 시스템에 로그

인한 후 줌을 이용하는 이중 보안 설정을 해놨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보안 문제는 줌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늘 주의하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보안 논란으로 인해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줌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구글, 스페이스X 등 일부 민간 기업도 줌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온라인 개학을 위한 시스템으로 줌을 권장하고 있다. 주요 대학 또한 보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줌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

해선 대학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줌의 보안 관련 이슈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는 “현시점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으며, 중앙대학교도 “현재로선 줌이 최적의 시스템이라 여겨진다”며 “보안 이슈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선 아직 줌 폭격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논란이 생긴 후 줌의 보안패치를 업데이트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한국대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김지원 | 제작/인쇄 중앙미디어디자인(주)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30-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영대로 1732(서원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